

【1】1987年3月20日(금요일)

## 坡州廉氏大宗報

를全國에 있는 일가부를에게  
으로서의 稽持를 심어주고 각  
宗會가 發足된 이래 별써 7년  
되어갑니다. 그동안 大宗會는  
이 되어온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을 달성하였고, 1983년 5월부터  
883년 5월부터 3년 4개월 만에  
宗編纂이 어려운 그동안 끝까지  
시작했던 大同 事務室도 마련하였고,  
宗會를 統轄하여 적  
어려운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883년 5월부터 3년 4개월 만에  
宗編纂이 어려운 그동안 끝까지  
시작했던 大同 事務室도 마련하였고,  
宗會를 統轄하여 적  
어려운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883년 5월부터 3년 4개월 만에  
宗編纂이 어려운 그동안 끝까지  
시작했던 大同 事務室도 마련하였고,  
宗會를 統轄하여 적  
어려운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883년 5월부터 3년 4개월 만에  
宗編纂이 어려운 그동안 끝까지  
시작했던 大同 事務室도 마련하였고,  
宗會를 統轄하여 적  
어려운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883년 5월부터 3년 4개월 만에  
宗編纂이 어려운 그동안 끝까지  
시작했던 大同 事務室도 마련하였고,  
宗會를 統轄하여 적  
어려운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 坡州廉氏宗報

鎬燮燮燮桓均  
東弘南敏宗承  
廉廉廉廉廉李  
人幹主編輯委員會  
行主編輯委員會  
發人印刷

## 回顧와所望

### 大宗會總務

廉弘燮

883년 5월부터 3년 4개월 만에  
宗編纂이 어려운 그동안 끝까지  
시작했던 大同 事務室도 마련하였고,  
宗會를 統轄하여 적  
어려운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 子孫書

를 全國에 있는 일가부를에게  
으로서의 稽持를 심어주고 각  
宗會가 發足된 이래 별써 7년  
되어갑니다. 그동안 大宗會는  
이 되어온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달성하였고, 1983년 5월부터  
883년 5월부터 3년 4개월 만에  
宗編纂이 어려운 그동안 끝까지  
시작했던 大同 事務室도 마련하였고,  
宗會를 統轄하여 적  
어려운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를 全國에 있는 일가부를에게  
으로서의 稽持를 심어주고 각  
宗會가 發足된 이래 별써 7년  
되어갑니다. 그동안 大宗會는  
이 되어온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달성하였고, 1983년 5월부터  
883년 5월부터 3년 4개월 만에  
宗編纂이 어려운 그동안 끝까지  
시작했던 大同 事務室도 마련하였고,  
宗會를 統轄하여 적  
어려운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를 全國에 있는 일가부를에게  
으로서의 稽持를 심어주고 각  
宗會가 發足된 이래 별써 7년  
되어갑니다. 그동안 大宗會는  
이 되어온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달성하였고, 1983년 5월부터  
883년 5월부터 3년 4개월 만에  
宗編纂이 어려운 그동안 끝까지  
시작했던 大同 事務室도 마련하였고,  
宗會를 統轄하여 적  
어려운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를 全國에 있는 일가부를에게  
으로서의 稽持를 심어주고 각  
宗會가 發足된 이래 별써 7년  
되어갑니다. 그동안 大宗會는  
이 되어온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달성하였고, 1983년 5월부터  
883년 5월부터 3년 4개월 만에  
宗編纂이 어려운 그동안 끝까지  
시작했던 大同 事務室도 마련하였고,  
宗會를 統轄하여 적  
어려운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를 全國에 있는 일가부를에게  
으로서의 稽持를 심어주고 각  
宗會가 發足된 이래 별써 7년  
되어갑니다. 그동안 大宗會는  
이 되어온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달성하였고, 1983년 5월부터  
883년 5월부터 3년 4개월 만에  
宗編纂이 어려운 그동안 끝까지  
시작했던 大同 事務室도 마련하였고,  
宗會를 統轄하여 적  
어려운 興伴 속에서도 많은 成果  
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우편번호 133-00  
서울特別市城東區聖水  
洞 1 가 656-980  
電話 463-1104

第4號

主幹의 담부

(1) 本報發展을 爲하여 史話 美談 隨筆等讀者여분의 많은 投稿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本報는 서울地區를 제외하고는 地方宗親會를 通하여 配付되고 있으니 迅速公正한配付를 바라고 있습니다.  
(3) 다음 第5號 宗報發行은 오는 10月中에 發行爲計이오니 倍前의 整援 있으시기를 바랍 니다.

은宿願課題이나 아직도完結되  
못하고있는 지통은 무엇으로서는지

과  
地域에서의  
협助의

면이 현격한데 많은  
이를 만 있을뿐 운영

### 3、大宗會事務室 갑주자

水原地方兵務廳

廳長廉忠都

三洋建設合資會社

代表廉敏雄

春川市 中央路 2 가 92

電話  
22120991

友一紡績株式會社

(製造品目..綿糸・化纖糸・混紡糸)

代表理事 廉吉燮

光州直轄市北區陽山洞四〇一十九

電  
話

五二一  
一一六  
六六五  
五六七

은 편찬위원회를 비롯  
한 일원의 지도와 능력  
洙씨를 비롯한 實務陣  
의 열성 그리고 全國  
門中에서의 적극적인  
원으로 3년 4개월에 걸  
친 각고 끝에 1986  
년 9월에 大同譜編纂을  
완료되었던 것을 회원  
들의 성금 2백 40여만 원  
으로 1천 4백 40평의  
경지를 정리하여 配水  
와 경작이 용이한 生  
活畜으로 조성하였으며  
都先山에는 2백 80여  
만 평의 정화사업을 투

# 代 化 繼 承 하 여 자

光州宗親會長

廉  
吉  
煙

은宿願課題이나 아직도 완결되지 못하고 있는 전통은 무엇으로 해결되어야 하겠는지 실현에 걸친 련된 分擔資金을 大宗會로서 꾸준히 관心과 發展을 推進시키지 마땅히 各地域에서 雖然 地域에 均等화 시도를 한다. 7年이라면 결코 짧은 时间은 아니는데 會館은 고사하고 벌집하나 없고 基金도 없어 사무室 하나 없고 育英事業을 사업을 위한 育英事業을 비롯한 여러事業을 推進할目標마저 세우지 못하는 現實에서 비록 現實에서 비록 想論이긴 하겠지만 몇가지 所謂를 提示해 본다.

과 協助의 地域에서는 面이 현격한데 많으니  
의 實을 두루지 않고 있음을 運營을 強화하니  
既成地域 眼鏡會別로 機構를 統合함으로써  
해서 運營의 實效를 거두고 소통을 확장하였다.  
음으로 各市 (서울·부산·대구·광주등)와 道別로 機構를 統合함으로써  
광주등과 道別로 機構를 統合함으로써  
서 羣衆結合과 上意下達의 소통을 확장하였다.  
이 容易토록 하여야겠다.

3、大宗會事務室  
發足하지 7년이 되는 지금도  
大宗會事務室은 변두리에 전세계에  
방하나를 얹어 운영하고 있는  
情이다. 會館建立은 주후의 自標  
이고 確實한 事業主진의 근거지  
를 마련하여 언제 누가도 大宗會運營을 한 눈에 볼수 있고  
宗會運營을 여하는 意慾를 심어 주자.  
하자

祝發展

이외範圍가限된가에있어。父母를돌아가신후에도。끌이당는가로。夙興夜寐。蒸爾所生이라。母와祖上을辱되게해서는 않된다고하며。孝道는。一生涯를通한。生活指針이라고強調하고있다。

孝의 첫길이고 基本이되어  
는 일로서 父母를 섬김에 있어 그恩을 생각하고 리워드는 옛을 살펴보면 詩經小雅篇에 衰哀父母生我劬勞。哀哀父母生我勞瘁。劬勞哀哀父母生我勞瘁。莫何怙無母何恃。中略民父母。 날 기르시느라 수고하였네 아야 우리부모님。남기리시느라 애쓰였네 아버님 없이 누구를 믿으며 어머님 없이 누구를 의지하리。나면 곧 걱정이오



〈下〉

平生토록 精進 할 일은

廣樂章歌詞에 있는 忠母曲에는 아소님하  
괴시리 엄세라(아이님아여)  
먼길 같이 사랑하여 주신다  
이 없어라 等로부터 考  
에 關한 노래와 글은 「  
類가 無數이고 三遷之教이  
勇氣로 表現되는 母의 慈母  
慨나 繖細한 配念과 그 母의  
情으로 繳繰된 申即任掌權

로서 朋類相集이라 하는等  
는다. 이러한 消息를 말하는 것이다.  
再言 하거니와 孝는 諦은  
父 母의 奉養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父母를 섭길으로 하여  
여 禽獸와도 際別되는 人  
倫의 德을 쌓고 國家와 社  
會에 貢獻함으로써 生生의 보  
림을 찾고 바른生活과 善  
惠의 깊이를 느낄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情을  
마땅히 子息을 예지 솔  
으며 애타는 精誠이 그치  
지 않는 道育의 經驗을  
도록 하면서 父母도 나에게  
이런 행으로 하여 積蓄하며 至  
亲의 恩惠를 다 알았느라 했  
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父母  
任의 둘 돌아가시면 더욱 그恩  
惠의 깊이를

花廬오 龍城은 在日本北一千里云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는 일찌  
기 二十八龍王이 있어서 사람의  
胎로 허아 나왔는데 五六歲부터는  
王位에 올라 萬民을 가르치고性  
命을 修正하며 階級은 八品의聖  
骨이 있으나 選擇을 하는 法이 없었  
이 모두 王位에 오르는데 現在에  
우리父王은 舍達婆로 積女  
女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오래되

衛하여 이곳까지  
을 마친 다음 그 童子는 지팡  
이를 이끌고 두下人과 같이 吐  
含山위에 올라가서 돌루현을 지  
어놓고 일주일 동안을 그곳에서  
留하면서 城中에 가히 살만한곳  
을 探查하다가 한곳을 바린본즉  
불후리가 曰月形과 같이 되고 그  
밀에 있는 터가 매우 좋아서 집  
될만하므로 주위를 살피고  
그證據로는 그집터의 땅을

解決을 못하고 급기야 官廳에서  
裁判을 하게되니 官廳에서  
물기를 무슨 證據가  
어서 그는 네것이라 主張하느냐 한  
그는 천연스럽게 對答하되 제  
안은 本來 풀무장이 治庄이  
참시 사정이 있어서 디를곳으로  
세에 남이 차지하게 된 것들이  
같다가 돌아와 보니 그

파라그로 데집 즉 있는 가  
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물풀을 떠나온다.  
이 물풀을 머처 먹고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어서 그릇이 그려져 사람의 드렸더니 오다니 그는 입에 불러 그 즉시 그를 험에 사에 험에  
여기 런 벼름을 이르는데 않으니 그는 다시 사람이다. 아니 한마디에 그는 그를 험에 험에  
여기 런 벼름을 이르는데 않으니 그는 다시 사람이다. 아니 한마디에 그는 그를 험에 험에  
여기 런 벼름을 이르는데 않으니 그는 다시 사람이다. 아니 한마디에 그는 그를 험에 험에

韓國姓氏의 源流

3

록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기도하였더니 일신하지  
년後에 큰망을 낳으므로 异常하  
게여겨 여러 친下에게 물온즉  
사람이 알을 낳은것은 古今에 없  
는 일이며 不吉之兆라 하니 王  
은 꿰작죽에다 나를 접어놓고 바  
다에 떠우며 祝願하기를 마음대  
로 因緣이 있는 곳으로 이루라  
타를 마침 불은 龍이 배를 護  
하니 與는 서로 쌔방을 싸우니  
그들은 바로 當立 堂嘗 太輔龜公의 집  
다. 그는 이에 陰計를 써서  
모를게 그 집현에다 솜돌과  
파묻고 그이를 날 새벽에  
大輔龜公집에 찾아가서 말하니  
이십은 本來우리의 祖上直부  
절하니 당시도 않은 말이라 龜公이  
거절하니 쌔방을 서로 싸우니

時勢  
이었  
남북  
시 사람을 보내어 그 집터를 물어보았더니 그가 智慧 있는 사람으로 밟았을 끝에 주어서 그가 남북을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부족  
장이가 쓴던 遺品이 나오므로 그 집터를 물어보았더니 그가 남북을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공도 할 수 없이 그 집터를 물어보았더니 그가 남북을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보아도 안타깝니 官廳에서는 조조는 그가 남북을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尼夫人이었다. 그는 어느 날 東阿로 가서 그가 남북을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人만 바로 이 風景이  
땅에 이 世界에 向하여 몇  
지 땅에 대한 우리 社會의 優  
理道德의 유 永久한 哲學의 인  
斷面이며 而자 看자이다.  
이 날은 가 날한 사람도, 平  
素不愛였던 사람도, 時間에  
모하기 己因親에 對한 무법을 찾는다  
루날이면 才能이 사람도, 一齊히  
먹기 前에 祭祠. 正月초한  
을 風習이 있지도 않느냐.  
이러한 行事는 人間의  
가족으로서 정말로 보람 있고 한  
거룩한 일이라고 느끼지 않

그 옛날에는 省墓의 所要 時間이 7時間に 걸렸는데지  
글은 不過 2時間이면 用務가 끝나지 않느냐. 너희들은 우  
리가 자라났던 世代에 비하  
여 너무나 많은 文言가 가지 文  
化的 惠澤을 받고 있다. 이만금 事物에 對하여 機能  
率의이며 研究와 深求하여 機能  
會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너는 寒食、秋夕일이면 저  
만우리고개를 넘어갈때各自  
가 祖上을 찾아뵙기 위하여  
온통 白衣의 人波로 뒤덮여  
있는 聖斯러운 모습을 똑똑  
히 보지 않았느냐.  
너는 아직 어려서 그 哲  
學의 眞理를 채 모를 것이

경호야  
네와 나와는 世代가 다르  
니마치 것이다. 그러나 彼此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며 生覺하는 方式도  
이하는 韓國人임을 틀림없을 것이다.  
나는 어렸을때 父의 뒷이  
를 하고 先山이 있는 退  
溪院方面을 걸어서 30里가 넘  
는 길을 웃어른은 短杖을 친  
고, 짚신을 신고 나는 까만  
얼굴화로 寒食、秋夕 때이면 빼  
놓지 않고 省墓의 교육을 받  
았다.  
돌아오는 길에는 웃어른이  
쫓을하면 酒糟집을 찾아 藥  
酒로서 피로를 달래고 나는  
주시는 고기 약주와 겪게이있  
는 땅콩. 그리고 사과등을 마  
냥 먹었다.  
그러나 産業의 發達로  
든면에 열마다 편하게 되었  
모

경호야!  
만이 아닌 이 나라의 이들 땅들에 거

하고 祭祠을 驅除하는 마치  
은 氣分으로 소란을 差之  
風潮은 禁物이다.  
이 날 이시각 란은 근엄한  
마음의 姿勢로 臨하여 암행  
事의 意義가 있고 價値가 있  
는 것이라 生覺한다.  
경호야!

도倫理道德面에 좋은 美風  
民俗이라면 따를진  
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리가 行하고 있는 省墓  
祠祭, 그리고 祭  
세배들은 自  
由民主主義社會에서  
사는 사람  
禮節에 對하여 비판한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是解放後  
급경한 西歐와 美國風의  
西歐와 美國風의  
미  
서流入으로 인하여 韓은

원이되어 1980년 大宗會  
決議로서 主로 光州가 中心에  
이되어 全國的인 募金을하여  
羅州都先山에 위 네흘부의 祭  
壇을 모시게 되었다.  
光州 地方에서는 末端公員會  
들도 50만원이란 거액의 獻  
술을 바치어 設壇事業에 기  
회에 협조하였다.  
매년 時祭때이면 全國 各  
地에서 觀光비스 페스티벌 등으로  
廉氏一家부들이 5백명 가량  
모여 참배하는 光景은

# 경호야! 너만이 아닌 이 나라의 아들 딸들에게

는 하나 問題는 이러한 要素를  
對하는 精神姿勢다. 形式에 對  
한 간소화는 產業文化의 時  
代의 變遷에 따른 必然의 인  
호흡이라 하겠지만 이러한 行  
事의 根本精神을 忘却하고省  
墓地에는 마치 「피코닉」 을 하

도倫理道德面에 좋은 美風  
民俗이라면 따를진  
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리가 行하고 있는 省墓  
祠祭, 그리고 祭  
세배들은 自  
由民主主義社會에서  
사는 사람  
禮節에 對하여 비판한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是解放後  
급경한 西歐와 美國風의  
西歐와 美國風의  
미  
서流入으로 인하여 韓은

원이되어 1980년 大宗會  
決議로서 主로 光州가 中心에  
이되어 全國的인 募金을하여  
羅州都先山에 위 네흘부의 祭  
壇을 모시게 되었다.  
光州 地方에서는 末端公員會  
들도 50만원이란 거액의 獻  
술을 바치어 設壇事業에 기  
회에 협조하였다.  
매년 時祭때이면 全國 各  
地에서 觀光비스 페스티벌 등으로  
廉氏一家부들이 5백명 가량  
모여 참배하는 光景은

인倫道德觀이 혼들리어 아버지에對한 孝와, 형제간의 友愛와, 선배에 대한 존경심에 많은 금이가고 있음은 肯定 못할 現實이라고 하겠다. 近間 報道와 들리는 바에 따라 하면 病들구 老衰한 父母에 대한 手中에 手동열마를 냉여 閑寂한 깊임에 버려놓고 간간히는 이야기를 간간히 듣는다. 고련한 이들을 가로되 고련이라 고 한다는 듯이다. 手中에 手동열마를 고어 주는 것을 보면 그래도 웬만 름 사는 人間의 所行이

世界各國에서 도  
르다 할지라도 形式은  
의 意思表示는 있을줄 안나다  
近來에와서 大家族제가 变  
遷되어 夫婦中心의 愛情과 精  
力의 源泉地라고도 할수 있다  
는 核家族제로 發展되어  
가는 過程에 있다  
發展까지는 좋으나 괴이하  
게도 利己一方의 方向으로 急

端을  
내  
廉  
弘  
燮  
나를 대로의  
披歷하여  
고 있다.  
이것이  
발展을  
高  
마련이라고  
앞의  
향하는  
스스로 따라  
生覺한다.  
참다운民  
길이라고 믿  
경論의  
보았다.  
一

斯에는 「경노석」 電鐵에는 「노  
약자지정석」 이란 표시가 있  
는데도 鐵道局의 많은 數字  
가 나이를 자신분이 앞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  
는 채 하고, 新聞을 보는 처하  
며, 좀처럼 자리양보에 인색  
하는 말이다.  
자리에는 가끔 美人도  
눈에 이 떠더랑 그려내 말야 그  
알미운 모습을 보면 어느 날갑  
자가 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갑자기 醜女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敬老席은 驚老席으로  
보이니 악못한 心情 禁 할 道  
埋 없구나.  
이에對하여 沒두려져 가는 것을  
覺한다. 젊은 世代에 責任을 생  
물것이 아니라 既成 世代의  
政 濟・經濟・社會 및 文化에 걸  
쳐 그 原因이 在하고 있  
다고 본다.  
하나 빼루려져 가는 것을  
너희들도 自覺하여 바로  
도록 힘을 써야 말한다. 이마  
당에 우리 康氏一家의 젊은  
層民이라도 虛虛實實한 자세  
를 버리고 人間으로서의 基  
本의 人倫道德의 規範에서  
離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흔  
들 명심하여 살아나가기 바  
란다.  
돈이 많고 權力이 있다  
반드시 행복한 것이라고  
覺하는 것은 오산이야 人生間  
으로서의 首尾를 다길줄 알

참으로  
정연하며  
合心團結의  
모습  
그대로이며  
이는 우리의  
열이요 우리의 자랑 이다.  
우리의  
경호야!  
이야기는  
다른지만  
말이야  
하기  
는  
를  
하고  
우리의  
뿐리를  
영원히  
간직  
하려고  
敬祖精神을  
바란다.

성명	소속	금액	내역
廉普敘	서울	800,000	贊助金
漢榮	시장		
漢榮	坡州	100,000	"
計		900,000	
廉德洙	釜山	50,000	廣告贊助金
琦燮	"	50,000	"
敏雄	春川	300,000	" (2回)
昌燮	서울	100,000	廣告贊助金
在先	富川	200,000	"
洙漢	서울	100,000	"
峻台	"	100,000	"
弘周	"	100,000	"
宇權	大邱	100,000	"
吉燮	光州	100,000	"
洪燮	"	100,000	"
東閣	"	100,000	"
權羽	"	100,000	"
圭連	"	100,000	"
東憲	"	100,000	"
忠郁	서울	200,000	"
忠郁	水原 兵務廳長	200,000	"
計		1,900,000	
合計		2,800,000	

80년 11월에 大宗會奉  
죽이 래 첫번째 사연으로 羅州都先山에 梅軒  
公availabiz를 爲始한 3  
형제분의 設壇事業을 일  
끌마치고 두번재로 30년만에 大同譜事  
는 30년만에 大同譜事  
業을 大過없이 완성함  
에 있어 이 어려운 일을 첫째、時日은  
무난히 치러낸 大宗會 要 하겠  
하여 祀廟事業도 하여  
하나 되겠고 둘째、現大  
宗會 氏族은 이제 憤然히 대  
사무실을 벌우리 同團結하여 알찬 大宗  
이 힘쓰이다. 會가 이룩되도록  
하니 謹此  
한 敬意와 謝意를 表  
한 바이며 그 풍적  
은 길이길이 빛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할  
일이 山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한 學徒를 위한  
事業도 궁극적으로는 산  
목적이고 面面課題이고  
보니 이에 대한 도지가  
의 繙出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바이며 우리  
氏族은 이제 憤然히 대  
同團結하여 알찬 大宗  
多 같

讀者의 소리

廉基朝 ^ 永登浦 中央企業 X

서우이민 천민이유자  
되겠고 셋째, 두뇌가 좋

# 生活의 禪

碧 江

祝

發

展

레미콘 · 파일 · 전주 · 흠과  
보도불럭 · 경계불럭

代表理事 廉 洪 燮

光山群河南面長德里九八三一  
(河南工團內)

司法書士廉東

光州直轄市 東區 弓洞七一七  
電話 二七一三一七七  
三七一七八〇〇

송월장여관  
염원의

東新化學工業社  
代表 廉圭連

光州直轄市 西區 花亭洞二三一三一  
電話 三三一三三六〇  
三三一六七九七

光州宗親會副會長

廉東憲

境과社會의秩序는이며,自己便宜을爲하고,內키는대로行動하면,外보다못한生活과弱肉強食의混亂이繼續될 뿐이리라.  
學校에서社會生活이나理나侧面에對해培加의 교육과指導에 고있지만 모든 것이 벌들이學校教育만 가지고는社會淨化的全般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우리는家庭과社會生活全領域에서禮와秩序를再認識과價値觀의 물론 일상생활에서 精誠을 現을 위해 있다.古人は禮를恭敬禮節의理라하여禮란마음으로恭敬하되,日常行動舉止에 있어法度를 지키는길로서 사람으로서行動하여야 할 생각하고,행動하여야 할 일이라.禮記에 보면君子恭敬禮節退讓이 쓰여,他에에게讓歩하여禮를 밟히라고,가르쳤다.史記自序에 説한 바에 根據로서 스스로謙하고,禮를 밟히는 것이고,法이란業에 대해 나た나기前에, 못이란 것이다.라

# 禮與秩序

〈本報編輯委員〉

# 大宗會消息

▲廉基鳳氏(서호종親翁)  
副會長) 長女 1986.

華燭文典

▲ 監事 .. 토섭 · 대수  
▲ 총무 .. 충식

1987. 1.

▲ 麻錦仁 (淸道)  
86년 12월 18일宿惠으로  
逝去

計告

• 19 級長 3 男 1986 •  
於 泰극당

任員改編  
釜山宗親會

地或宗親會

卷之三

私心 버리 團合하고  
精誠 모아 奉仕하자

◇時鐘行事장면(1986.11.6)